

2018년 12월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 171개국 27,993명, 전년대비 557명 증가 -

KWMA

2018년도 선교사 파송 집계는 12월말 현재 171개국에서 27,99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선교사 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세계선교협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지만, 2007년도에 비회원단체로 범위를 확장시킨 이후로, 전체 한국 선교계를 조사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 단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에 응하기가 여의치 않는 작은 선교 단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개교회 파송, 노회 파송 등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각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느끼는 선교사수와 본부가 발표하는 수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따라서 발표되는 선교사 통계는 흐름을 이해하고 현상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더 크다. 금년도 조사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발견되었다.

1. 여전히 진행되는 ‘자기 정화’의 작업들

1979년을 기점으로 ‘과거 25년을 생각하고 미래 25년’을 내다 본 2006년(4차 엔코워)은 6개 선교전문 영역의 형성, 5개년씩 계획한 타겟 2030 비전 선포 등을 통해 한국 선교 발전의 한 분기점이 될 만큼 의미 있는 해였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시점인 2016년에 마감된 파송증가 ‘0’ 포인트는 위기감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0’ 포인트로 정리된 통계 보고는 한국 선교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었다. ‘한국 선교사 파송이 꼭짓점을 치고 이제는 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 아닌 염려’는 2017년 한선지포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보고서에도 정리된 것처럼 한국의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꾸준히 2자리 정도로 증가를 보였었다. 그것을 말해 주듯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1명이 증가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예년에 비해 둔화된 증가였지만, 한국 선교사 파송은 꾸준히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금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 과거의 4자리 수의 증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증가는 하되, ‘어떤 선교사,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는 보다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타겟 2030에서 발표되었던 3차 5개년 시기로 ‘선교 전력투구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정리되는 선교사 파송수는 우리가 무엇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지를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통계 조사의 특징은 여전히 ‘허수 빼기’라는 작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별히 교단 선교부에서 마이너스로 기록된 수는 200명이 넘는다. 교단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규모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도 ‘구조 조정’으로, 카운팅의 방법을 현실화한다고 예년보다 마이너스로 마감한 곳이 있는데, 그 수도 만만치가 않다. 2015년 FMB가 ‘이사회에서 양적인 물량 선교보다는 질적이고 성숙한 선교를 위해 허입과 관리와 마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결정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파지만 크고 작은 단체 안에서 조용히 ‘허수 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2-3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라는 이 시점에서 외형으로 보여 지는 한국 선교사의 파송수는 완

만하게 증가 곡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둔화된 양적 증가를 보일 것이다.

2. 교단 선교부들의 약진

2018년도에 늘어난 선교사 수는 557 명이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주요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마이너스로 마감한 곳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부지런히 힘써서 복음 전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별히 교단 선교부는 꾸준히 ‘자기 정화’를 하면서도 선교사 파송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에 세 자리수의 마이너스로 정리한 ○교단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였다. ‘과거에는 기독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협력 선교사, 또는 동역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교단 선교사로 계수하였지만 이러한 수를 전부 빼고 순수하게 선교사로 파송 받은 사람만 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실무자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다. 실무자에 따르면 그 수를 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교사 증가는 마이너스였지만 ‘정식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사’는 늘어났다고 하였다. ‘허수 빼기’를 하면서 자기 정화를 해 가는 교단 선교부는 <표 1>에서 보듯이 파송 선교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2년부터 7년간 평균 277명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1> 교단 선교사 증가 현황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교사수(명)	11,024	11,482	11,764	11,930	12,192	12,374	12,686

교단 선교부와 같이 선교단체들 역시 파송 수치에 변화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미비함을 보이고 있다. KWMA가 보유한 파송 선교사 조사 대상 단체는 190여개가 되지만 10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다고 표시한 단체들은 130여개 정도다. 그 수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존재하고, 실제로 파악된 단체들이 폐쇄된 곳도 여러 곳이 있다. 동시에 조사 범위 밖에 존재하는 선교단체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조사 대상 선교 단체가 많아서 교단 선교부 파송 선교사 보다는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단체로 제한한다면 교단 선교사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단체 파송 선교사 증가보다는 교단 선교사 증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교단 선교사 파송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비자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선교 환경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목회자 배경의 선교사들의 증가 현상은 미래 한국 선교가 무엇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통계조사 결과는 파송수가 ‘줄었다·늘었다’라는 단선적인 결과보다는 통계가 주는 이면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3. 수치로 보는 2018년 파송 현황

조사 방법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KWMA회원 단체를 필두로 해서 조사 범위 안

에 있는 비회원단체, KWMA 산하 협력단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 11월에 협력 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에 걸쳐 입력이 이루어졌다. 12월 30일까지 응답하는 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12월 31일에 마감되었다.

1) 조사 대상 현황

가능한대로 선교사가 있는 단체를 총 망라하는 것이 보다 정확에 가까운 수치가 집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원하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유명무실하거나 존폐 위기의 교단이나 선교단체도 있고, 동시에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사 대상 밖에 있는 단체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금년도 조사대상 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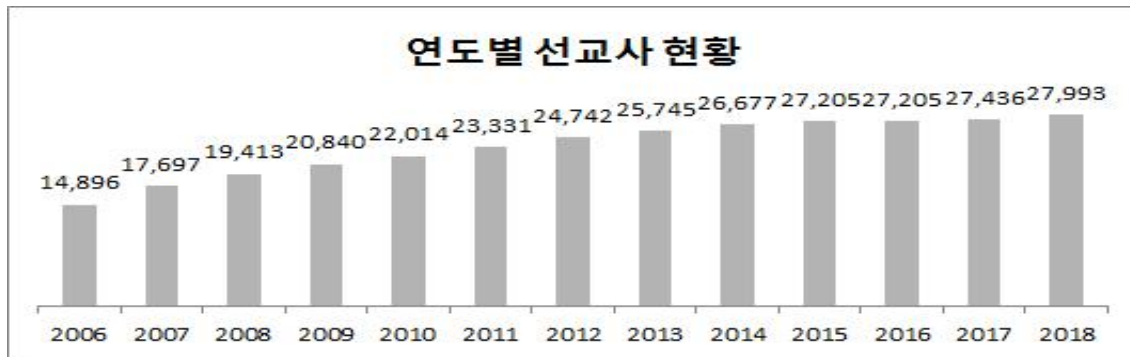
조사 대상 단체 현황					
	파송선교사 수	수(개)		파송 선교사 수	수(개)
교단 선교부	1000명 이상	3	선교 단체	100명 이상	36
	100명 이상	14		50명 이상	30
	20명 이상	9		10명 이상	72
	이하	12		이하	46
계		38			184

2)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선교사 수와 비율

구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38	12,686	43.60%	645
선교단체	184	16,428	56.40%	1,597
합계	222	29,114	100.00%	2,242

과년도별 선교사 현황

비율: 파송의 수는 미분리지만 집계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례적 '역대그래프'를 통해서 보
면 파송수의 증가가 분단적에 따라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최다 파송국가 추이

500명 이상의 파송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171개국 가운데 한국(본부 사역자 포함)을 포함해서 13개국이다. 13개국의 선교사 수를 합하면 전체 파송 선교사의 수의 50%를 조금 상회한다. 최다파송 상위 10개국을 2016부터 그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2018년 최다활동국가	개척지수	사역단체수 (개)	2018년 활동선교사수(명)	2017년 최다활동국가	2016년 최다활동국가
1	동북아X국	F1	142	3,549	동북아X국	동북아X국
2	미국	G2	75	2,590	미국	미국
3	일본	F2	79	1,547	필리핀	필리핀
4	필리핀	G2	91	1,542	일본	일본
5	태국	F2	64	956	태국	서남아 I국
6	동남아 I국	F3	64	847	서남아I국	태국
7	서남아 I국	F3	84	839	동남아I국	캄보디아
8	캄보디아	F2	82	829	캄보디아	동남아I국
9	러시아/연해주	F2	66	604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연해주
10	동남아 V국	F2	70	564	T국	T국
합계/비율		13,867/47.6%			14,402/50.7%	14,459/50.9%
전체 선교사 수(명)		29,114			28,584	28,395

활동 선교사의 수가 약간의 차이로 일본과 필리핀, 동남아의 I 국과 서남아의 I 국의 순위가 달라졌지만 수 년 동안 상위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슬람권역인 T국에서의 활동 선교사 수가 줄어서 10위 밖에 위치하고 동남아의 V국이 상위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 권역별 활동 현황 추이

4년간의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선교사들의 주 활동 권역은 아시아 지역이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권역(한국 본부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17,751명(61%에 해당됨)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지리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거대 종교권, 즉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대부분인 지역이기 때문에 한

국 선교가 여전히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	활동 선교사 수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동북아시아	5,916	6,319	6,402	6,430
동남아시아	5,865	5,893	5,739	5,575
북아메리카	3,103	3,075	3,015	3,196
한국	2,223	2,185	2,011	1,906
남아시아	1,707	1,792	1,858	1,860
중동	1,110	1,388	1,336	1,315
서유럽	1,243	1,240	1,282	1,368
동남아프리카	1,222	1,205	1,213	1,200
중앙아시아	930	1,181	1,218	1,203
라틴아메리카	1,166	1,170	1,199	1,222
동유럽	1,070	1,110	1,107	1,101
남태평양	918	959	952	951
북아프리카	441	611	610	553
서중앙아프리카	357	366	354	348
카리브해	91	90	99	98

6) 주요 사역 현황

1인 다중 사역이 강한 한국 선교사의 사역 체크는 ‘주로 하는 사역’의 의미를 말한다. 많이 체크된 사역은 교회개혁, 제자훈련,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 교육 등이며, 어린이/청소년 사역, 의료, 신학교, 비즈니스, 선교행정과 동원 등의 사역도 다수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혁	153	14,624
제자훈련	141	9,663
복지/개발	82	2,017
캠퍼스	63	1,954
일반교육	79	1,671

7) 선교사 자녀 현황

2017년부터 선교사 자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시도로 자녀 현황과 함께 자녀들의 연령대와 거주 형태(부모와 함께인지 아닌지 등)를 조사항목에 추가하였다.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녀수(명)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17,618	18,442	18,543	18,810	19,661	18,372

담당자들이 체크하기 수월하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금 더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

아있다. 응답된 것을 중심으로 보면 19세 이하가 4,595명(52%), 20세 이상이 4,220명(47%)으로 집계되었고, 4,817명(56%)의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한국 거주가 2,656명(31%), 기타 거주(유학 등으로 인한 제 3 지역)가 1,049명(12%) 정도로 나타났다.

4. 발견되는 과제들

1) 보다 정확한 연령대의 집계

현상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 갈 수 있도록 기초 조사 항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선교통계조사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령대의 파악이다. 모든 선교사의 연령대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답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교사의 고령화를 읽어 낼 수 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40대가 많은 것은 아직은 한국 선교가 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감사하지만, 40대 이하인 30대와 20대의 수치는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20·30대가 미래 선교를 이끌어 갈 잠재적 리더들인데, 한국 선교가 수치적으로 격차가 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448	1,666	5,541	5,332	2,709

또한 조사가 아직은 흡족하지 않지만 은퇴 선교사의 수치도 정리되고 있다. 2018년 은퇴 선교사는 응답해준 것에 따라서 829명에 달한다. ‘선교사에게 은퇴는 없다’고 하는 큰 방향 속에서 은퇴의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상기의 표를 중심으로 60대 이상의 2,700여명(17%)인데 전체 선교사(27,993명)로 확대 유추해 본다면 4,748명 정도가 은퇴를 직전에 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 30대의 선교사 수를 합한 것보다 60대가 더 많은 것은 한국 선교사의 양적 증가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하게 한다.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강조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지표들이다.

2) 선교 현장에서 집계 되어야 할 선교사 수

현장과 한국에서 조사되는 수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2년에도 샘플링을 통해 ‘선교 현지 활동 선교사 현황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전체 파송자 수보다는 적어도 만 명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각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의 파악은 집중해야 할 지역과 더 집중해야 할 곳, 그리고 근거를 갖고 파송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선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장의 실제 수를 조사하는 것도 과제로 남겨 둔다.

기초자료서의 충실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있다. ‘함께 그날까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는 한국 선교에서 ‘통계’가 갖는 함의는 큰 그림과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과 해석이다. 2016년 ‘0’포인트의 성장에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3만 명대를 향해서 가는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갖고 가야하는지를 기초적인 통계를 통해서 읽어내기를 소망해 본다. 통계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현장에서 사역에 힘을 쏟는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